

TFT-LCD, 중국 올림픽 효과 “호황”

하나증권, 2008년 생산 32.1% 증가 ... 중국 CRT TV 3억-4억대 대체

하나대투증권은 11월7일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사업은 Beijing 올림픽 효과 등으로 2008년에도 호황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정 애널리스트는 “2008년 TFT-LCD패널 생산기업들의 전년대비 공급증가율(면적기준)이 32.1%에 불과하고, TFT-LCD패널 수요가 신흥시장 수요 확대와 중대형 LCD-TV시장의 급성장, 듀얼모니터 및 모니터의 대형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 “특히 2008년에는 중국 Beijing 올림픽 효과를 감안하면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요 증가가 TFT-LCD 사업 전반에 가장 큰 성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13억명을 넘는 인구를 보유한 중국의 TV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으나 대부분 CRT-TV세트인데, 2006년까지 누적 판매된 LCD-TV는 551만대이고, 2007년 예상판매량은 794만대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이미 보급된 약 3억-4억대의 CRT-TV 대체 수요가 앞으로 10년 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이후 경제가 급성장한 덕택에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까지 가전제품의 판매가 크게 늘어났듯이 2006년 1인당 GDP가 2000달러를 넘어선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LCD-TV를 비롯한 가전제품의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LG필립스LCD와 에이스디지텍, 태산엘시디, 한솔LCD를 업종 톱픽(최선호) 종목으로 추천하고 LG필립스LCD에 대해서는 2008년 TFT-LCD 사업 호황과 중국 LCD-TV 수요증가의 최대 수혜기업으로 판단해 목표주가를 8만원으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1/07>